



6 일본 KPMG 컨설팅, '글로벌 테크놀로지 리포트 2026' 발표

⇒ 일본 KPMG 컨설팅은 전 세계 기업 리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전략과 도입 현황을 분석한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포트(일본어판)*를 발표('26.5)

* 「KPMGグローバルテクノロジーレポート2026」(日本語版)

※ '25년 12월 영문판으로 먼저 공개되었던 보고서를 일본어판으로 발표

● (개요) '25년 전 세계 기업들의 기술 활용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, 기업이 기술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8가지로 정리해 제시

- '25년 전 세계 27개국, 2,500명 이상의 기업 기술 리더 및 경영진(C레벨 등)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, 유력 기술기업·조직의 기술 리더 8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작성

※ 인터뷰에는 구글 AI 시장 전략 담당 이사 딘 보르츠(Dean Bortz), HPE 수석 부사장 필 모트럼(Phil Mottram), MS 365 코파일럿 마케팅 총괄 세스 패튼(Seth Patton) 등이 참여

- 조사 결과는 '지능 시대(Intelligence Age)*'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에서 AI와 기타 신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가치 창출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제시

* AI와 범용인공지능(AGI)이 인류 사회의 핵심 원동력이 되어 경제, 과학, 일상 전반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

● (주요 트렌드) 기업의 ▲AI 활용 현황 ▲기술 투자와 성과 ▲기술 전략의 노후화 ▲에이전틱 AI 너머 지능 시대 준비 등의 측면에서 다음의 주요 트렌드를 포착

1. AI 활용은 확대되고 있으나, AI를 통해 투자수익률(ROI)을 실현하거나 전사적 규모로 AI를 전개하는 조직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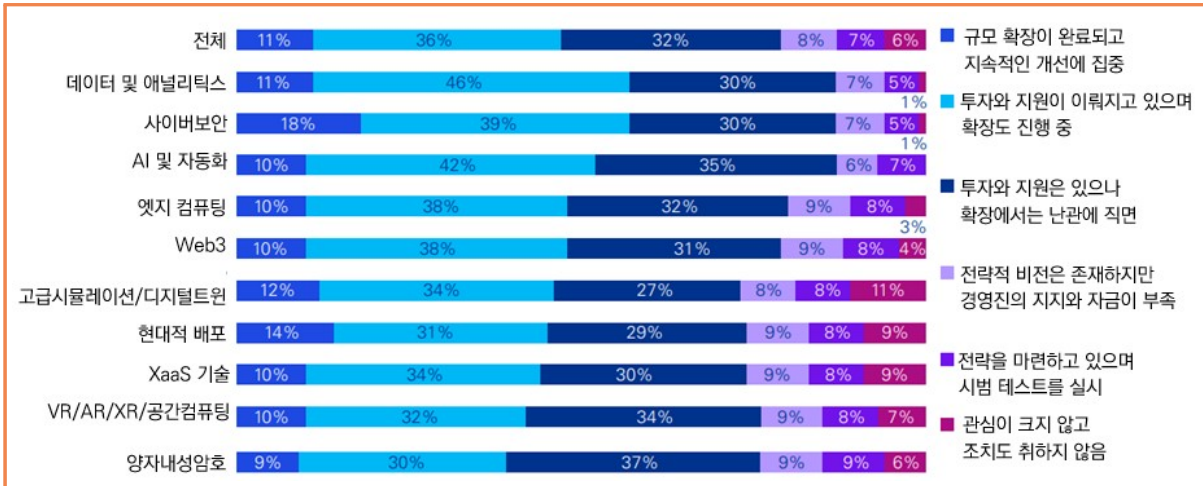
- (기술성숙도) 조직의 79%가 기술성숙도*에서 상위 3개 수준에 도달했고, 10대 기술 중 '데이터 애널리틱스', '사이버보안', 'AI·자동화'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

* 기술성숙도는 10대 기술에 대한 조직의 투자·도입 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하는데, 상위 3개 수준에 이른 조직은 해당 기술은 전개 및 확산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

- (AI 도입 수준) 74%의 조직이 이미 AI를 활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AI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ROI를 실현하는 조직은 24%에 그쳤는데, 다만 조직들은 '26년에는 AI 도입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

※ '25년 AI 도입 수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▲AI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ROI 실현 24%('26년에는 68%로 증가 전망) ▲핵심 사업 역량에서 전략적 투자, AI 활용 사례로 비즈니스 가치 창출 50%('26년 29%) ▲AI 개념증명 테스트 다수 진행, AI가 활용되지만 ROI는 미실현 21%('26년 3%) ▲제한된 수의 AI 개념증명 테스트 진행, 일부 AI 활용 사례 포착 5%로 조사

〈 '25년 10가지 조사 대상 기술별 기술성숙도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 〉



출처 : KPMG글로벌테크놀로지레포트 2026

2. 기술 투자에 의한 가치 창출 성과는 조직에 따라 현저한 격차를 제시

- 전체적으로 기술 투자에 대한 평균 ROI는 2배인 반면, 꾸준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조직의 평균 ROI는 4.5배로 매우 높아 현저한 격차를 제시
- ROI가 높은 조직들을 분석한 결과, 투자 규모 그 자체보다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프로세스의 성숙도가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

〈 ROI가 높은 성공적인 조직의 특성 〉

구분	ROI	특성
소규모 조직	3.6배	• 매출에 비해 투자액이 큰 편이며, 일반적으로 부서 간 낮은 장벽, 단순한 생태계, 효율적인 거버넌스, 간소화된 승인 절차 등이 특징적
기술 도입 선도 조직	2.2배	• 신기술을 앞서 도입한 기업은 투자 비용은 적어도 더 큰 효과를 획득 • 반면, 후발 기업의 ROI는 1.4배에 불과한데, 이는 앞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학습과 접근법을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
비용 압박이 적은 조직	2.6배	• 신기술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기회 활용이 가능
혁신 중심 조직	3.2배	• '25년 기술 예산의 50% 이상을 혁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조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ROI를 기록 •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투자로 인한 성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

3. 기술 전략은 빠르게 노후화

-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능 시대에 기술 전략은 개발 직후 이미 구식의 것이 될 위험이 큰데, 실제로 기술 분야 고위 경영진의 56%는 급속한 기술 환경 변화로 인해 자사의 기술 전략이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다고 응답
- 반면,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서는 16%만이 기술 전략의 노후화를 인정했고, 기술 예산의 42%를 '성장'에 투자하고 있었는데, 이는 이러한 기업들이 민첩한 의사결정과 투자 배분을 통해 환경 변화에 더 잘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



※ 기술 프로젝트 유형별(▲유지보수형, ▲성장형, ▲비즈니스 모델·프로세스 개혁형) 예산 배분 비중에 대해 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각각 30%, 42%, 28%라고 응답했고, 나머지 조직들은 35%, 36%, 29%라고 응답

4. 에이전틱 AI 너머의 지능 시대에 대한 준비 필요

- 조직의 88%는 이미 에이전틱 AI를 통합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, 92%는 에이전틱 AI 관리가 향후 5년간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측
- 한편, 양자 컴퓨팅, 범용 인공지능(AGI), 인공 초지능(ASI)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수많은 신기술 및 도구에 대한 준비도 필요
- 이와 관련해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들은 이미 ▲인재에 대한 투자 ▲지정학적 긴장 등을 고려한 채용 전략 ▲협업과 보안 추구 ▲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위험 감수 등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이에 대응

※ 에이전틱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은 '27년에도 기술 인력의 50%를 정규직으로 배치하고, 자국 기술 인재 채용을 확대하며(57%), 외부 파트너와 협력을 추구하고(85%), 신기술 도입을 시도할(87%) 계획이라고 응답

- (8가지 핵심 과제) '26년 기업이 AI 역량을 고도화하고 신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전략 8가지를 권고

〈 '26년 기업들의 핵심 과제 〉

구분	내용
학습 가속화, 새로운 경쟁 우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직의 지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 • 신속한 학습과 지식 공유 제도화
데이터 기반 투자를 통해 가치 극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숙도 지표 및 외부 벤치마크를 참고해 증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, 성과를 꾸준히 추적·예측 • 핵심성과지표(KPI)를 현재의 기술 환경과 새로운 접근 방식에 맞게 조정
적응력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, 도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 방향 전환 •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혁신적인 문화 구축
미래 지향적인 에이전트 기반 인력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량 강화, AI 활용 능력 향상, AI의 효과적인 AI 사용·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인재 전략 재설계
AI 퍼스트(AI-first), 신뢰 내재화(trust-by-desig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설계 및 의사결정에서 'AI 퍼스트' 사고방식을 장착하고,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뢰, 투명성, 책임감을 내재화 • 책임 있는 AI를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활용
데이터 기반 강화 및 기술 스택 현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 스택을 현대화하고, 레거시시스템을 교체하며,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모듈형의 동적 아키텍처 구축
전략적 파트너십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생태계 파트너를 선정 •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'공동 창출'의 관계로 전환
미래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자 컴퓨팅, 범용인공지능, 인공 초지능 등의 시대에 대비해 현 시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

출처 : 일본 KPMG 컨설팅 (2026.5.19.)

<https://assets.kpmg.com/content/dam/kpmgsites/jp/pdf/2026/jp-global-tech-report.pdf>